구결점의 현토 위치의 세분과 위치 변이 현상에 대하여*

-『유가사지론』 권5, 8을 대상으로-

장경준**

요 약

이 글은 『유가사지론』 권5와 권8을 대상으로 하여 이 자료에 나타나는 구결점의 현토 위치의 세분과 위치 변이 현상에 대해 소개하고 이들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찰한 것이다.

『유가사지론』 계통의 점토구결에서는 서로 다른 구결점으로 인식되는 위치가 30여 군데에 이르고 그 위치들 사이의 거리가 대단히 가까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이 자료에서는 동일한 구결점이 서로 다른 위치에 현토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른바 '구결점의 위치 변이' 현상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현토자가 구결점을 달 때 한자의 획을 현토 위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 자료의 현토자가 현토 대상 한자의 다양한 자형상의 특징까지 고려하면서 구결점을 단 이유는, 구결점의 변별 위치가 대단히 세분되어 있어서 이들을 구분해 줄 명시적인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핵심어: 구결, 점토구결, 구결점, 단점의 점도, 구결점의 위치 변이, 기준 위치, 변이 위치

---

* 이 글은 2004년 9월 2-3일 일본 북해도대학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하기 위해 작성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글의 초고를 읽고 유익한 평을 해주신 오미영, 이용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1. 머리말

2000년 7월에 고바야시요시노리, 남풍현 선생님 등에 의하여 점토구결과 석독구결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각필구결 자료가[1] 처음 발굴된 이래 지금까지 『유가사지론』 계통 3종, 『화엄경』 계통 7종, 『법화경』 계통 2종 등 모두 12종의 자료가 조사되었다.[2] 그리고 성암고서박물관에 소장된 7종에 대해서는 이점본 및 원본을 촬영한 사진본과 이것을 디지털화한 CD본이 보급됨으로써 이 자료들을 정밀하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또한 2001년 12월에 소장 연구자들의 연구 모임이 결성되어 이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오고 있기도 하다.[3]

---

1) 이 글에서는 잠정적으로 주요 용어를 다음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 구결(口訣) : 한문에 토를 달아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법
  토(吐) : 구결에서 한문에 덧붙여진 것
- 구결점(口訣點) : 구결에서 표음 기능을 하는 점이나 선
  구결자(口訣字) : 구결에서 표음 기능을 하는 문자
- 점도(點圖) : 구결점이 표상하는 음상을 추정한 결과를, 구결점과 구결자의 대응 관계를 이용하여, 기준으로 삼은 사각형 위에 구결자로 표시한 것
- 점토구결(點吐口訣) : 구결점을 주로 이용하여 토를 다는 구결
  자토구결(字吐口訣) : 구결자를 주로 이용하여 토를 다는 구결

구결은 토를 다는 방식에 따라 '점토구결/자토구결'로 분류할 수 있지만, 구결문을 읽는 방법에 따라 '석독구결(釋讀口訣)/음독구결(音讀口訣)'로 분류할 수도 있고, 토를 다는 도구에 따라 '각필구결(角筆口訣)/모필구결(毛筆口訣)'로 분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연구 대상의 성격을 종합하면 '각필점토석독구결(角筆點吐釋讀口訣)'이라는 긴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

2) 이들 자료의 자세한 서지 사항은 小林芳規・西村浩子(2001), 南豊鉉・李丞宰・尹幸舜(2001), 鄭在永(2001), 이전경(2002), 南豊鉉(2003)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한편 지난 4월 26일에는 박진호 선생님이 그동안 자토석독구결 자료로만 알려져 왔던 『금광명경』 권3에 거의 전권에 걸쳐 구결점과 부호가 현토되어 있는 것을 새로 발견하기도 하였다.

3) 필자는 이 글의 작성 과정에서 각필구결 자료 연구 모임의 성과물을 보조적으로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점토구결 자료 가운데 『유가사지론』 권5, 8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토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구결점들이 서로 변별되는 위치가 30여 군데에 이를 정도로 현토 위치가 세분되어 있다. 둘째, 동일한 구결점이라도 현토 대상 한자의 자형에 따라 현토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종류의 부호가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유가사지론』 계통 점토구결의 특징에 대한 이러한 기술은 구결 연구자들 사이에 이견을 보이는 부분이 있는 등 아직은 잠정적인 파악의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위에 언급한 두 번째 특징은 이른바 구결점의 위치 변이 현상에 대한 것으로서 이 자료에 익숙지 않은 독자에게는 쉽게 수긍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이 글은 『유가사지론』 계통 점토구결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이 자료에 나타나는 구결점의 현토 위치의 세분과 위치 변이 현상에 대해 소개하고 이들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구결점의 현토 위치의 세분

점토구결 자료에서 한문에 덧붙여진 토는 기본적으로 표음 기능을 하는 구결점과 표음 이외의 기능을 하는 각종의 부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결점은 그것이 취하는 형태와 그것이 현토된 위치를 통해 일정한 음상을 표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토구결의 구결자에 대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구결점들을 정밀히 관찰하면 점토구결 자료인 『유가사지론』 권5와 권8은 자토구결 자료인 『유가사지론』 권20과 매우 유사한 현토 양상을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유가사지론』 권20에서는 한문 원문에서 '能'자나 '善'자가 단독으로 부사로 쓰일 경우 항상 구결자 'ᄉᆞ'가 사용되었는데, 『유가사

지론』 권5, 8에서는 동일한 환경에서 항상 '能'자나 '善'자의 오른쪽 아래 획의 바깥쪽에 단점 형태의 구결점이 관찰된다.([그림1, 2] 참조)[4]



[그림1] 能(05:13:11)



[그림2] 善(08:14:15)

따라서 『유가사지론』 권5, 8에 사용된 구결점 '55(·)'은[5] 적어도 이 환경에서는 『유가사지론』 권20에 사용된 구결자 'ᄉᆞ'와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55(·)'은 'ᄉᆞ'에 대응된다는 가정 아래 『유가사지론』 권5, 8에 현토된 '55(·)'의 모든 용례들을 검토해 보면 대체로 『유가사지론』 권20에서 'ᄉᆞ'가 사용되었던 환경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결국 '55(·)'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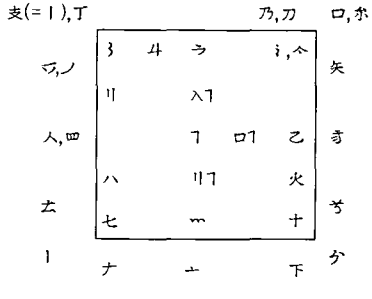
4) 이 글의 용례의 출전 표시에서 '能(05:13:19)'는 "권5의 제13장 19행에 있는 '能'자"임을 가리킨다.

5) 이 글에서 '55(·)'는 '55 위치의 단점'을 뜻한다. 위치를 표시할 숫자는 아래 그림에 표시된 것을 기준으로 하되 두 위치의 경계에 있는 경우 '~'를 사용하기로 한다.(장경준 2003ㄴ) 예컨대 '23~33(·)'은 '23과 33 사이에 위치한 단점'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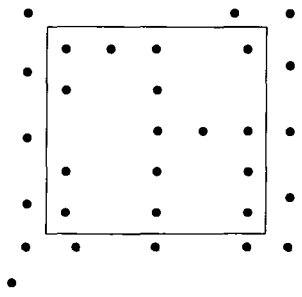
11	12	13	14	15
21	22	23	24	25
31	32	33	34	35
41	42	43	44	45
51	52	53	54	55

지 'ㅎ'의 사용과 관련하여 권5, 8의 점토구결과 권20의 자토구결은 매우 유사한 현토 양상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게 된다.[6]

이와 같이 주로 기존 자토구결 자료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유가사지론』 권5와 권8에 현토된 단점 형태의 구결점들의 가치를 추정한 결과를 귀납하여 그림으로 표시한 것 중의 하나가 [그림3]의 점도이다.[7]



[그림3] 『유가사지론』 권5, 8의 단점(·)의 추정 점도(장경준 2004)



[그림4] 『유가사지론』 권5, 8의 단점의 변별 위치

그리고 [그림3]에서 구결점들이 서로 변별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위치만을 점으로 표시하면 [그림4]와 같이 된다. 서로 다른 구결점으로 인식되는 위치가 30여 군데에 이르고 그 위치들 사이의 거리가 대단히 가깝게 되어 있다.

『유가사지론』 권5, 8에서 [그림4]와 같이 현토 위치가 세분되는 구

6) 이 밖에 『유가사지론』 권5, 8의 점토구결과 권20의 자토구결이 비슷한 현토 양상을 보이는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장경준(2002ㄴ, 2003ㄱ, 2004ㄱ, 2004ㄴ), 박진호(2003ㄴ), 서민욱(2004) 등을 참조할 수 있다.

7) [그림3]의 점도는 장경준(2002ㄱ)에 제시한 것을 장경준(2004ㄱ)에서 약간 수정한 것이다. 이 점도는 현재 소장 학자들의 연구 모임에서 대체로 인정받고 있지만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잠정적인 것으로서, 관점에 따라서는 구결점의 변별 위치가 이보다 더 세분될 가능성도 있다.(서민욱 2004 참조)

체적인 사례를 하나 보기로 하자. 이 자료에서 '者'자에 'ㅋ, ㅅㄱ, ㄱ'에 각각 대응하는 '23(·), 23~33(·), 33(·)'이 현토될 경우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



[그림5] 者(08:12:18)



[그림6] 者(08:09:09)



[그림7] 者(08:0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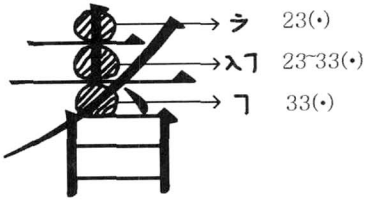
[그림8] 者(05:02:08)



[그림9] 者(05:04:06)



[그림10] 者(05:0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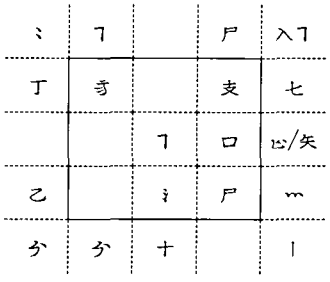


[그림11] '者'자의 현토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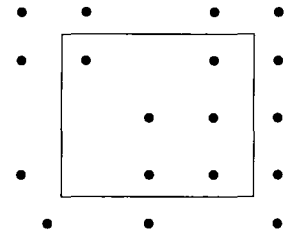
[그림5, 6]은 'ㅋ'에 대응되는 '23(·)'이, [그림7, 8]은 'ㅅㄱ'에 대응되는 '23~33(·)'이, [그림9, 10]은 'ㄱ'에 대응되는 '33(·)'이 각각 현토된 예들

인데, 이들을 종합하여 각각의 단점이 현토된 위치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11]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유가사지론』 권5, 8에서 [그림11]에 표시된 영역에 단점이 현토된 모든 용례들을 검토해 보면, 거의 예외 없이 기존 자토구결 자료에서의 현토 양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장경준 2003ㄱ) 따라서 '者'자에 현토된 'ㅋ, ㅅㄱ, ㄱ'에 각각 대응하는 구결점들의 경우 이들이 서로 변별되는 위치는 [그림4]에서와 같이 파악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유가사지론』 계통의 점토구결 자료에서 파악되는, 위와 같은 구결점의 현토 위치의 세분 현상은 같은 점토구결 자료인 『화엄경』 계통의 자료와는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그림12] 주본 『화엄경』 권36의 단점(·)의 추정 점도(박진호 2003ㄱ)



[그림13] 주본 『화엄경』 권36의 단점의 변별 위치

[그림13]은 박진호(2003ㄱ)에 제시된 주본 『화엄경』 권36에 대한 단점의 추정 점도에서 구결점의 변별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이것을 [그림4]와 비교해 보면 『유가사지론』의 단점의 점도가 『화엄경』 권36의 점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세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유가사지론』 계통 점토구결의 점도에서 구결점의 위치가 다른 계통의 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세분되어 있는 것은 크게 주목할 만한 특징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토 위치의 세분으로 인하

여 다음에 기술할 구결점의 위치 변이와 같은 현상이 『유가사지론』 계통의 자료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3. 구결점의 위치 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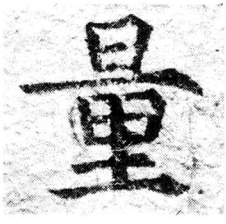
앞서 [그림3]에 제시한 단점의 추정 점도는 다음과 같은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이 자료에 현토된 단점 형태의 구결점들을 판독한다.

둘째, 판독된 단점들을 대상으로 기존 자토구결 자료의 현토 양상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들끼리 분류한다.

셋째, 분류 결과 서로 변별되는 것으로 파악된 각각의 단점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기준으로 삼은 사각형에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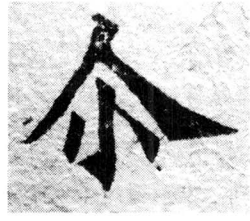
그리고 점도 작성의 세 번째 단계에서 사각형을 기준으로 구결점의 위치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기준 위치'와 '변이 위치'의 개념을 상정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다음 예를 보자.



[그림14] 量(08:09:12)



[그림15] 尒(05:06:22)



[그림16] 尒(08:08:10)

[그림14, 15, 16]은 각각 단점 형태의 구결점이 하나씩 현토되어 있는

데 이들은 점도 작성의 두 번째 단계에서 동일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다시 말해 이들 세 예에 현토된 구결점들은 앞뒤의 문맥과 기존 자토 구결 자료에 대한 지식 등을 종합해 볼 때 모두 구결자 '亽'에 대응되는 것이 분명한 예들로 판단되는 것들이다. 따라서 점도 작성의 세 번째 단계에서 이들 세 용례에 현토된 구결점들의 위치는 동일한 위치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구결점의 위치 판단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구결자와의 대응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관찰하면 '量'자에 현토된 구결점의 위치와 '亦'자에 현토된 구결점의 위치를 같다고 판단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림15, 16]의 두 예를 비교해 보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결점의 위치를 파악할 때 '판독한 결과물로서 독자의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위치'와 '판독된 구결점에 대한 해석을 반영한 추상적인 위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림14, 15, 16]에서 판독된 구결점들은 원래는 동일한 추상적인 위치를 갖는 것들인데 현토 과정에서 현재 관찰되는 구체적인 위치로 각각 변이되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림14, 15, 16]의 구결점의 위치는 점도에 반영된 추상적인 위치인 '기준 위치'가 현토 대상 한자의 자형상의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현토 위치로 결정되는 위치 변이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실현된 '변이 위치'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기준 사각형의 네 모서리 주변에 위치한 단점을 대상으로 위치 변이의 양상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되었다.(장경준 2002ㄷ)

첫째, 구결점의 위치 변이는 철저하게 사각형의 네 모서리로 삼을 글자의 획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기준으로 삼는 위치는 대체로 바깥쪽으로 향한 획의 맨끝이거나 각진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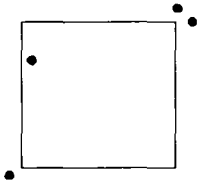
둘째, 모서리로 삼을 위치는 개별 한자의 자형상의 특징에 맞게 오른쪽과 왼쪽, 위쪽과 아래쪽을 각각 따로 설정하였다. 그래서 네 모서리로 삼은 위치들을 선으로 이어보면 대칭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셋째, 동일한 자형에서도 모서리로 삼을 만한 곳이 여럿 있을 경우 결과적으로 모서리로 삼는 위치가 가변적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가변적 위치의 범위는 제한적이고 대체로 예측 가능하다.

넷째, 자형상 모서리로 삼을 만한 곳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경계선을 그어 모서리를 표시하거나, 지시선을 긋고 다른 글자를 빌어 그곳에 점을 찍는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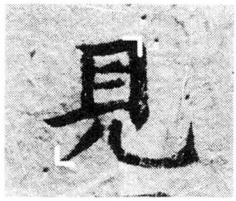
이러한 위치 변이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보자. 『유가사지론』 권20에서 '무엇을 (이름하여) X라고 하는가?'로 해석되는 구문은 X가 하나의 현토 단위일 경우 예외없이 '云何ㅅㄱㄹ (名下) (爲)Xㅐㅣㄴᄉᆞㅁ' 또는 '何(ㅁ) 等ㅅㄱㄹ (爲)Xㅐㅣㄴᄉᆞㅁ'로 현토되어 있다. 따라서 『유가사지론』 권5, 8과 『유가사지론』 권20이 동일한 현토 양상을 보인다고 가정하면, 『유가사지론』 권5, 8에서는 동일한 구문에서 'X'에 해당하는 부분의 마지막 글자에 'ㅐㅣㄴᄉᆞㅁ'에 대응되는 구결점들이 현토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현재 'ㅐ', 'ㅣ', 'ㄴᄉᆞㅁ'에 대응되는 구결점은 각각 '22~32(·)', '51(·)', '15(·.)'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들을 점도에 표시하면 [그림17]과 같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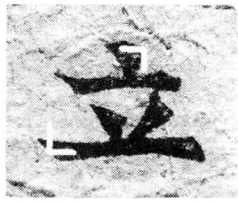


[그림17] 현토 예상 구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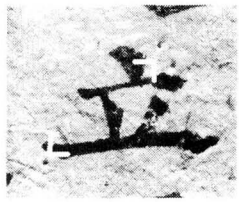
그리고 [그림17]과 같은 현토 양상이 기대되는 환경에서 실제 현토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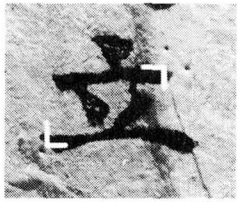
[그림18] 見(08:20:08)



[그림19] 立(08:01:05)



[그림20] 立(05:1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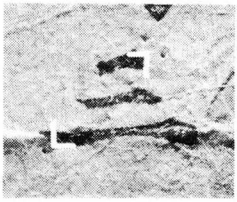
[그림21] 立(05:16:10)



[그림22] 取(08:19:09)



[그림23] 相(08:05:18)



[그림24] 三(08:0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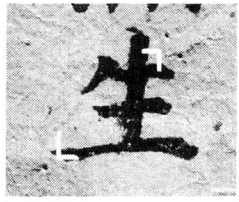
[그림25] 七(05:0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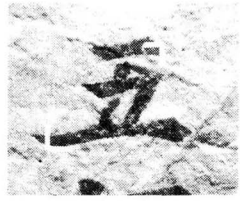
[그림26] 處(05:20:08)



[그림27] 業(08:21:08)



[그림28] 生(08:19:06)



[그림29] 五(05:02:14)

8) 그림에 표시된 노란색 선은 위치 변이 과정에서 모서리로 삼은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 필자가 임의로 추가한 것이다.

위의 그림들에서는 공통적으로 'ㅣ', 'ㅅㅗㅁ'에 대응되는 '51(·)'과 '15(·.)'이 현토되어 있고 'ㅐ'에 대응되는 '22~32(·)'은 현토되어 있지 않다. 이 '22~32(·)'은 문법적으로 계사 어간 'ㅐ'를 표상하는 것으로서, 계사 어간 'ㅐ'를 표상하는 구결점은 이 자료의 다른 환경에서도 현토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9] 따라서 이 구문의 경우 'ㅐ'의 생략 현상을 감안하면 『유가사지론』 권20의 자토구결과 『유가사지론』 권5, 8의 점토구결이 대체로 동일한 현토 양상을 보인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용례에서 관찰되는 구결점들의 위치는, [그림17]의 점도에 표시된 추상적인 기준 위치가 위치 변이의 과정을 거쳐 구체적으로 실현된 변이 위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위의 그림에서 우리는 (1)[그림18, 22, 23, 25, 26] 등을 통해 '51(·)'은 사각형의 왼쪽 아래 모서리로 삼을 글자의 획을 기준으로 위치 변이가 일어난 것을, (2)[그림23, 24, 25, 27] 등을 통해 '15(·.)'은 사각형의 오른쪽 위 모서리로 삼을 글자의 획을 기준으로 위치 변이가 일어난 것을, (3)[그림25] 등을 통해 사각형의 왼쪽 아래와 오른쪽 위 모서리로 삼은 위치가 대칭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4)[그림19, 20, 21, 27, 28] 등을 통해 사각형의 오른쪽 위 모서리로 삼을 만한 위치가 둘 이상 있을 때 결과적으로 현토 위치가 가변적일 수 있으며 그 가변적인 범위 또한 대체로 예측 가능하다는 것 등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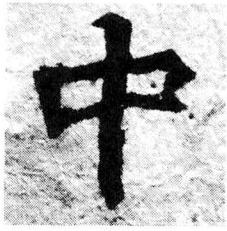
4. 현토 위치의 세분과 위치 변이의 관련

이처럼 이 자료의 현토자는 구결점의 구체적인 현토 위치를 결정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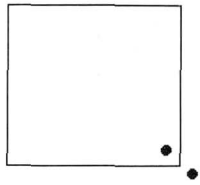
9) 예컨대 『유가사지론』 권20에서 'X ㅢㅣㅅㄱㅅㄱ 者'로 현토된 이른바 'X-者' 구문의 경우 『유가사지론』 권5, 8에서는 'ㅐ'에 대응되는 '22~32(·)'이 전혀 현토되지 않았다.(장경준 2003ㄱ: 232-236)

때 현토 대상 한자의 다양한 자형상의 특징을 고려하였고, 특히 한자의 획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음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현토자는 왜 한자의 획을 현토 위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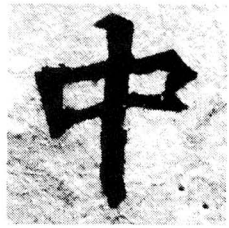
현토자의 입장에서는 서로 변별되는 구결점의 위치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현토된 구결점의 상대적인 위치를 객관적으로 구분해 줄 수 있는 명시적인 기준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한자의 획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예를 보자.



[그림30] 中(08:21:04)



[그림31] 기준 위치



[그림32] 현토상상도

[그림30]에서는 '中'자에 두 개의 단점이 현토되어 있는데 구결점의 위치 변이 현상을 고려하면 이들의 기준 위치는 [그림31]에 표시된 위치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그림30]에 현토된 구결점들은 각각 'ㅏ'에 대응되는 '44(·)'과 'ㅇ'에 대응되는 '55(·)'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치 해석은 이 용례가 속한 통사적 환경이 조사 'ㅏ'와 연결어미 'ㅇ'가 현토될 것이 예상되는 환경이라는 점[10] 등을 고려하면

10) [그림30]의 예가 속한 부분의 잠정 판독 및 해독안은 다음과 같다.(표기 방식은 장경준(2003ㄴ)을 따른다. 이하 같음)

A: 由[역독선]耎不善業[34(·),24(·),43(·)]{32(·)}故[21(·)]生傍生中[44(·),55(·)]由中不善[42(·)]業[34(·),=24(·),43(·)]故[21(·)]生餓鬼[42(·)]中[44(·),55(·)] <유가 권8 21:03-05>

B: 由耎不善業[ㄹ, ㅣ, ㅺ]故[ㅅ]生傍生中[ㅏ,ㅇ]由中不善[ㄴ]業[ㄹ, ㅣ, ㅺ]故[ㅅ]生餓鬼[ㄴ]中[ㅏ,ㅇ]

이견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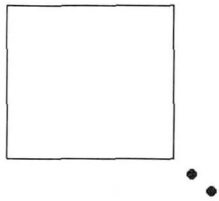
그런데 이 예에서 구결점의 위치 변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현토 결과는 아마도 [그림32]처럼 되었을 것이다. 이 때 [그림32]를 본 독자가 거기에 현토된 구결점을 [그림31]처럼 '44(·)'와 '45(·)'으로 쉽게 해석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림33] 箭(08:07:15)



[그림34] 燒(08:07:19)



[그림35] 55(·.)의 기준 위치

[그림33, 34]는 동일한 환경에서 '53(·)'과 '55(·.)'이 현토되어 있는 예들이고,[11] 여기 현토된 '55(·.)'의 기준 위치는 [그림35]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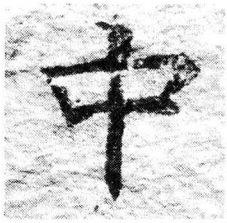
C: 奧不善 業乙 由ㅣ(ㄱㅅ)ᄆᆞ{故ㄴ} 傍生 中十 生ᄀᆞ 中不善ㄴ 業乙 由ㅣ(ㄱㅅ)ᄆᆞ{故ㄴ} 餓鬼ㄴ 中十 生ᄀᆞ

D: 奧不善 業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傍生 中에 나며, 中不善(의) 業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餓鬼(의) 中에 나며,

E: 부드러움의 착하지 못한 업으로 말미암아 축생 중에 나며 중간의 착하지 못한 업으로 말미암아 아귀 중에 나며

11) [그림33, 34]의 예들은 모두 한문 원문이 '… (名爲)X'로 되어 있으면서 '… 이름하여 X라고 하며'로 해석되는 구문의 끝부분이다. 그리고 『유가사지론』 권20의 자토구결에서는 이러한 환경에서 X가 하나의 현토 단위일 경우 예외 없이 '… (名下 爲)Xㅗㄴᄒᆞᄀᆞ'로 현토되어 있다. 따라서 적어도 이러한 환경에서는 '箭'자와 '燒'자에 현토된 '53(·)'과 '55(·.)'이 각각 'ㅗ'와 'ㄴᄒᆞᄀᆞ'에 대응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용례의 잠정 판독 및 해독안 제시는 지면 관계상 생략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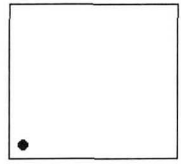
[그림32]를 본 독자가 [그림33, 34]와 같이 '55(·.)'이 현토된 예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면 [그림32]의 '中'자에 현토된 구결점이 [그림31]처럼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두 개의 단점('44(·)'과 '55(·)')인지 [그림35]처럼 한 위치에 있는 쌍점('55(·.)')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치 해석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44' 위치와 '55' 위치의 경계, 즉 기준 사각형의 오른쪽 아래 모서리 부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그림32]에는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자의 획을 이용해 위치 경계가 분명히 인식되도록 한 [그림30]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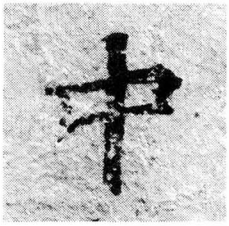
[그림36] 中(05:0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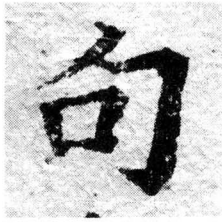
[그림37] 句(08:1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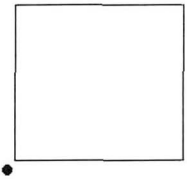
[그림38] 42(·)의 기준 위치



[그림39] 中(08:13:11)



[그림40] 句(08:18:15)



[그림41] 51(·)의 기준 위치

[그림36, 37]은 위치 변이를 고려하면 '中'자와 '句'자에 'ㄷ'에 대응되는 '42(·)'이 현토된 것으로 해석되고 [그림39, 40]은 '中'자와 '句'자에 'ㅣ'에 대응되는 '51(·)'이 현토된 것으로 해석되는 예들이다. 이 예들에 현토된 구결점에 대한 위치 해석도 각각이 속한 통사적 환경 등을 고

려할 때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것들로서,[12] '42(·)'과 '51(·)'의 기준 위치는 각각 [그림38, 41]로 표시할 수 있다.

우리는 위의 예를 통해 '中'자와 '句'자의 경우 기준 사각형의 왼쪽 아래 모서리 부분을 경계로 매우 가까이 위치한 '42(·)'와 '51(·)'의 현토 위치가 분명히 구분되었으며, 두 위치의 명시적인 구분 기준으로 한자의 획을 이용하였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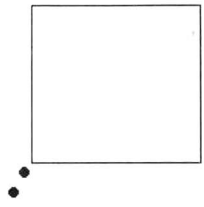
그리고 만일 현토자가 이러한 명시적인 구분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앞서 살펴본 경우와 마찬가지로, 독자는 이들 두 단점('42(·)'과 '51(·)')과 '51(.·)'을 구분하기가 어려웠을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실제 '51(.·)'이 현토되어 있는 예를 보자.



[그림42] 負(08:18:15)



[그림43] 等(08:19:06)



[그림44] 51(.·)의 기준 위치



[그림45] 현토상상도

12) [그림36, 37]의 예는 '中'자와 '句'자가 한문 원문에서 관형어 성분으로 해석되는 단위의 마지막 글자이므로 조사 'ㄴ'이 현토될 환경이고 [그림 39, 40]의 예는 '中'자와 '句'자가 'X-者' 구문의 'X'에 해당하는 단위의 마지막 글자라서 종결어미 'ㅣ'가 현토될 환경임이 분명하다. 각 용례가 속한 부분의 잠정 판독 및 해독안 제시는 지면 관계상 생략하기로 한다.

[그림42, 43]은 통사적으로 거의 비슷한 환경에 속해 있는 예들로서,[13] 구결점의 위치 변이를 고려하면 공통적으로 '51(·)'이 현토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들의 기준 위치는 [그림44]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13) [그림42, 43]의 예는 모두 'X-者' 구문에서 'X'를 설명하는 부분이 '謂'로 시작되는 문장의 마지막 종결 부분이므로 종결어미를 포함한 어미통합체가 예상되는 환경이다. 해당 부분의 잠정 판독 및 해독안은 다음과 같다.

[그림42]의 경우 :

A: 第四句[51(·)]者[23~33(··)]謂實[33(·)]毁犯[35(·)]於諍[44(·)]墮負[35(·),51(.·)]<유가 권8 18:15>

B: 第四句[ㅣ]者[xㅅㄱ]謂實[ㄱ]毁犯[ㅎ]於諍[+]墮負[ㅎ,xㅣ]

C: 第四句(ㅢ)ㅣ{者}xㅅㄱ 謂 實ㄱ 毁犯(ㅅ)ㅎ {於}諍+ 墮負(ㅅ)ㅎxㅣ

D: 第四句라 하는 것은, 즉 실은 毁犯하고 다툼에서 지고 하는 것이다.

E: 넷째 구절은 실제로 범하여 다툼에서 지게 된 것이다.

[그림43]의 경우 :

A: 復次法相差別建立[51(·)]者[23~33(··)]謂卽煞生[31(·)]離煞生[31(·)]等[=51(.·)]<유가 권8 19:05-06>

B: 復次法相差別建立[ㅣ]者[xㅅㄱ]謂卽煞生[ㅅ]離煞生[ㅅ]等[xㅣ]

C: 復 次(ㅋ) 法相差別建立(ㅢ)ㅣ{者}xㅅㄱ 謂 卽 煞生ㅅ 離煞生ㅅ 等xㅣ

D: 또 다음으로 法相差別建立이라 하는 것은, 즉 殺生과 離殺生과 등이다.

E: 법 모양의 차별을 세움이라 함은 산 목숨을 죽이는 것과 산 목숨을 죽이지 않는 것 따위이다.

한편 『유가사지론』 권20에서는 이와 같은 통사적 환경을 보이는 예가 6번 관찰되는데 문장 종결 부분의 현토 양상은 일정하지 않다. 따라서 이들 용례에 현토된 '51(.·)'의 대응 구결자 추정은 근거가 충분치 않다. 다만, [그림42]의 예와 거의 비슷한 문장 구조를 보이는 다음의 예들에서는 '-ㅅ(ㄷ)尸矣ㅣ'로 현토되어 있음이 주목된다 :

(예1) 世俗正法施設圓滿ㅢㅣㅅㄱㅅㄱ{者} 謂ㄱ 卽ㅁ 彼 補特迦羅ㅢ 佛ㅢ 出世ㅅ白ノ尸ㅅ乙 値白ㅁ 又 廣ㅢ 善不善法ㅗ 有无罪ㅗ 廣ㅢ 說尸 乃ㅔ 至ㅢ 諸緣生法ㅗノ尸乙 開示ㅅㅎ 及ㄴ 廣ㅢ 謂ㄱ 契經ㅗ 應頌ㅗ 記別ㅗ 諷頌ㅗ 自說ㅗ 緣起ㅗ 譬喩ㅗ 本事ㅗ 本生ㅗ 方廣ㅗ 希法ㅗ 及 與ㄴ 論議ㅗノ尸乙 分別ㅅㅎㅅㄷ尸矣ㅣ<유가 권20 02:23-03:05>

(예2) 正行不滅圓滿ㅢㅣㅅㄱㅅㄱ{者} 謂ㄱ 佛世尊ㄱ 般涅槃ㅅㄷㅁㄴ人{雖}ㅛ 而ㄱ 俗正法ㅢ 猶ㅢ 住ㅅㅈㅂ 未滅ㅅㅎ 勝義正法ㅢ 未隱未斷ㅅㅎㅅ尸矣ㅣ<유가 권20 03:11-13>

그런데 [그림43]의 예에서 현토자가 만일 '等'자의 자형과 무관하게, 즉 위치 변이를 적용하지 않고 '51(.·)'을 현토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아마도 [그림45]와 같이 현토 위치를 정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림45]를 본 독자는 거기에 현토된 구결점을 '42(·)'와 '51(·)'로 해석해야 할지 아니면 '51(.·)'로 해석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준 사각형의 안쪽과 바깥쪽을 구분해 줄 위치 판단의 기준이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사례들에서 현토자가 구체적인 현토 위치를 정할 때 기준 사각형의 안팎을 구분해 줄 명시적인 기준이 필요했던 근원적인 이유는, 이 자료에서 구결점들이 서로 변별되는 위치가 매우 가깝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만일 점도상에 표시되는 구결점의 위치가 충분히 떨어져 있어서 현토 대상 한자의 자형과 무관하게 현토 위치를 정해도 독자가 판독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굳이 구결점의 위치 변이라는 현토 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유가사지론』에 비해 구결점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덜 세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화엄경』 계통의 자료에서는, 아직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글에서 언급한 위치 변이 현상이 존재하더라도 『유가사지론』에서처럼 철저하게 한자의 획을 기준으로 현토 위치를 정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따라서 독자로 하여금 개별 한자의 다양한 자형상의 특징까지 고려하면서 구결점을 판독할 것을 요구하는 『유가사지론』 계통 점토구결의 독특한 현토 방식인 구결점의 위치 변이는 이 자료의 점도에서 구결점들의 변별 위치가 대단히 세분되어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유가사지론』 권5와 권8을 대상으로 하여 이 자료에서 관찰되는 구결점의 현토 위치의 세분 현상과 위치 변이 현상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이 두 현상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찰해 보았다. 논의의 핵심은, 이 자료에서 점도에 반영되는 구결점들의 변별 위치(즉, 기준 위치)가 매우 세분되어 있기 때문에 현토자가 구체적인 현토 위치(즉, 변이 위치)를 정할 때 철저하게 현토 대상 한자의 획을 위치 변이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의 논의는 『유가사지론』 권5와 권8에 현토된 구결점의 모든 용례에 일반화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우선 이 글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은 단점 이외 형태의 구결점들의 변별 위치에 대한 파악이나 기준 사각형의 네 모서리 주변 이외의 부분에서 일어나는 위치 변이에 대한 정밀한 고찰이 더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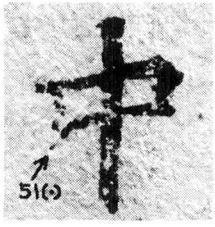
또한 한자의 자형은 매우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현토 대상 한자의 획을 기준으로 변이 위치를 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경계선, 지시선, 구결자 등의 부호를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예들도 다수 관찰된다. 이러한 부호의 사용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점도나 부호의 사용 등에서 『유가사지론』 계통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화엄경』, 『법화경』 및 최근 새로 발견된 『금광명경』 권3 등과의 비교 연구, 나아가 점토구결과 성격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훈점 자료와의 비교 연구 등도 앞으로의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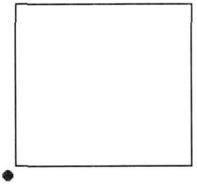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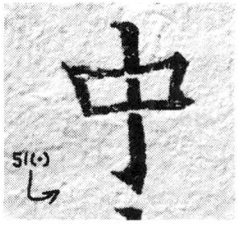
필자는 이 글을『구결연구』에 투고한 뒤 같은 내용을 제30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2004.8.16-17)에서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정토론을 맡은 서민욱 선생님은 필자의 견해에 대해 "변이 위치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구결점의 위치가 매우 세분되어 있기 때문이기보다는, 현토자가 구체적인 현토 위치를 정할 때 한자의 획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필자는 먼저 서민욱 선생님의 진지한 토론에 감사드리며 제시된 견해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간단히 답변하고자 한다.

『유가사지론』 점토구결에서는 심한 경우 동일한 위치에 찍힌 구결점이 서로 다른 위치로 해석되기도 하고 서로 다른 위치에 찍힌 구결점이 동일한 위치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것이 필자가 굳이 설명을 위해 '구결점의 위치 변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화엄경』 계통에서는 잘 관찰되지 않는 것같다. 본문에 들었던 예와 화엄경의 예를 하나만 비교해 보자.[14]



유가사지론 08:13:11


51(·)의 기준 위치



주본화엄경 36:12:20

14)『유가사지론』의 예는 본문의 [그림39]의 예이고,『화엄경』의 예(36:12:20)가 속한 부분의 잠정 판독 및 해독안은 다음과 같다.(화엄경은 상대적으로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편의상 화살표로 현토 위치를 표시하였다)

위의 두 예는 모두 '中'자에 51(·)이 현토된 예이다. 『유가사지론』과는 달리 『화엄경』의 경우에는 현토된 구결점의 위치를 해석하는 데에 구결점의 위치 변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필자는 두 계통의 점토구결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상대적인 차이를 변별 위치의 조밀함의 정도의 차이와 관련시켜 해석해 본 것이다.

그러나 필자 또한 기본적으로는 '현토자가 현토 위치를 정할 때 한자의 자획을 고려했기 때문에 변이 위치가 나타난다'는 서민욱 선생님의 견해와 다르지 않다. 다만, 『유가사지론』의 경우 『화엄경』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철저하게 한자의 획을 기준으로 현토 위치를 정하였으며, 이 글은 이러한 두 계통의 점토구결의 상대적인 차이에 대한 해석에 초점을 맞춘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참고문헌

金永萬(2003), 「瑜伽師地論 卷第五·八 角筆口訣에 나타난 如(ᄎ,ㅅ)」, 『제28회 전국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구결학회, pp.101-107.

김영욱(2001ㄱ), 「初雕大藏經 瑜伽師地論 卷三의 口訣에 대하여」, 『제24회 共同硏究會 發表 論文集』, 口訣學會, pp.137-143.

_____(2001ㄴ), 「『유가사지론』 점토(點吐)의 해독 방법 연구」, 『口訣硏究』 7, 口訣學會, pp.57-77.

_____(2001ㄷ), 「瑜伽師地論 雙點吐의 解讀 方法 硏究」, 『第2回 國際學術大會 發表 論文集』, 口訣學會, pp.215-229.

_____(2004), 「周本 華嚴經 卷三十六의 口訣」 『韓國 角筆 符號口訣 資料와 日本 訓點 資料 연구-華嚴經 資料를 중심으로-』(정재영 외 지음), 태학사, pp.133-154.

A: 能令衆生[41(·)]住實諦[25(·)]中[53(·),24(|),51(·),경계선]

B: 能令衆生[乙]住實諦[ㄷ]中[十,ㄲ,分]

C: 能(ᄎ) 衆生乙 實諦ㄷ 中十 住 令ㄲ分

D: 능히 중생을 實諦 가운데에 머물게 하며

南豊鉉(2000ㄱ), 「高麗時代의 點吐口訣에 대하여」, 『제27회 국어학회 공동연구회 발표 논문집』, 국어학회, pp.41-44.

_____(2000ㄴ), 「高麗時代의 點吐口訣에 대하여」, 『書誌學報』 24, 韓國書誌學會, pp.5-45.

南豊鉉・李丞宰・尹幸舜(2001), 「韓國의 點吐口訣에 대하여」, 『訓點語と訓點資料』 107, 東京: 訓點學會, pp.69-102.

_____(2002), 「高麗時代 角筆點吐 釋讀口訣의 種類와 그 解讀-晉本華嚴經 卷20의 點吐釋讀口訣을 중심으로」, 『朝鮮學報』 183, 朝鮮學會, pp.1-22.

_____(2003), 「修德寺 所藏 法華經 卷七의 角筆 釋讀口訣에 대하여」, 『제28회 전국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口訣學會, pp.61-69.

_____(2004), 「周本 華嚴經 卷六의 角筆 點吐釋讀口訣 硏究」, 『韓國 角筆 符號口訣 資料와 日本 訓點 資料 연구-華嚴經 資料를 중심으로-』(정재영 외 지음), 태학사, pp.41-53.

박진호(2003ㄱ), 「周本 『華嚴經』 卷第36 點吐口訣의 解讀-字吐口訣과의 對應을 中心으로-」, 『口訣硏究』 11, 口訣學會, pp.211-247.

_____(2003ㄴ), 「『瑜伽師地論』 點吐口訣에서 11위치의 單點에 대응되는 字吐」, 제28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 자료.

_____(2004),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2)」, 『口訣硏究』 12, 口訣學會, pp.215-232.

서민욱(2001), 「'者'字의 부호구결에 대하여」, 『口訣硏究』 7, 口訣學會, pp.167-197.

_____(2004), 「'如'에 호응하는 점토에 대하여-『유가사지론』 권5와 권8을 중심으로-」, 제29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 자료.

尹幸舜(2001), 「한국의 符號口訣과 일본의 오코토(ヲコト)點에 대하여」, 일본 북해도대학 워크샵 발표논문집, pp.91-106.

_____(2003), 「漢文讀法에 쓰여진 韓國의 角筆符號口訣과 日本의 오코토點의 비교-『瑜伽師地論』의 點吐口訣과 文字口訣을 중심으로-」, 『口訣硏究』 10, 口訣學會, pp.79-113.

_____(2004), 「周本 華嚴經 卷第二十二에 대하여」, 『韓國 角筆 符號口訣 資料와 日本 訓點 資料 연구-華嚴經 資料를 중심으로-』(정재영 외 지음), 태학사, pp.55-71.

李丞宰(2000ㄱ), 「初雕本 瑜伽師地論의 角筆 符號口訣에 대하여」, 『제23회 구결학회 공동연구회 발표논문집』, 口訣學會, pp.59-69.

_____(2000ㄴ), 「새로 발견된 각필 부호구결과 그 의의」, 『새국어생활』 10-3, 국립국어연구원, pp.135-152.

_____(2001ㄱ), 「周本 華嚴經 卷第22의 角筆 符號口訣에 대하여」, 『口訣硏究』 7, 口訣學會, pp.1-32.

_____(2001ㄴ), 「瑜伽師地論 角筆 符號口訣의 解讀을 위하여」, 『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李珖鎬先生 回甲紀念論叢), 태학사, pp.229-250.

_____·安孝卿(2002), 「角筆 符號口訣 資料에 대한 조사 연구-誠庵本 『瑜伽師地論』 卷第5와 卷第8을 중심으로-」, 『口訣硏究』 9, 口訣學會, pp.115-145.

_____(2002), 「옛 문헌의 각종 부호를 찾아서」, 『새국어생활』 12-4, 국립국어연구원, pp.21-43.

_____(2003), 「角筆 符點口訣의 意義와 硏究 方法」, 『구결학회·국어사자료학회 공동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국어사자료학회, pp.55-69.

_____(2004), 「周本 華嚴經 卷第五十七의 書誌와 角筆 符點口訣에 대하여」 『韓國 角筆 符號口訣 資料와 日本 訓點 資料 연구-華嚴經 資料를 중심으로-』(정재영 외 지음), 태학사, pp.73-98.

이 용(2004),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3)」, 『口訣硏究』 12, 口訣學會, pp.233-247.

이전경(2002), 「각필자료 법화경 권1에 대하여」, 제12차 국어사자료학회 학술발표대회(2002.8.16) 발표 원고.

장경준(2002ㄱ), 「『瑜伽師地論』 角筆口訣에 대한 管見」, 구결학회 월례강독회(2002.2.23) 발표 원고.

_____(2002ㄴ), 「點吐釋讀口訣 자료에 기입된 口訣字와 대응 口訣點에 대하여-『유가사지론』 권5,8을 대상으로-」, 『口訣硏究』 9, 口訣學會, pp.205-225.

_____(2002ㄷ), 「구결점(口訣點)의 위치 변이에 대한 기초 연구-『유가사지론』 권5, 8을 대상으로-」, 『국어사 자료 연구』 3, 국어사자료학회, pp.5-30.

_____(2003ㄱ), 「점토석독구결에서 구결자 'ㅅㄱ'에 대응되는 구결점에 대하여-『유가사지론』 권5, 8을 대상으로-」, 『한국어학』 19, 한국어학회, pp.227-247.

_____(2003ㄴ), 「점토석독구결 자료의 판독 및 해독 결과 기록 방안-『유가사지론』 권5, 8을 대상으로-」, 『제28회 전국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구결학회, pp.111-121.

_____(2003ㄷ),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자료의 '지시선'에 대하여」, 『口訣硏究』 11, 口訣學會, pp.189-209.

_____(2004ㄱ), 「『유가사지론』 권5, 8의 '故'자에 현토된 구결점에 대하여」, 『제29회 전국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구결학회, pp.9-20.

_____(2004ㄴ),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1)」, 『口訣硏究』 12, 口訣學會, pp.191-213.

鄭在永(2001), 「誠庵古書博物館 所藏 晉本 華嚴經 卷二十에 대하여」, 『口訣硏究』 7, 口訣學會, pp.33-56.

_____(2004), 「晉本 華嚴經 卷二十의 書誌와 角筆 符號口訣에 대하여」, 『韓國 角筆 符號口訣 資料와 日本 訓點 資料 연구-華嚴經 資料를 중심으로-』(정재영 외 지음), 태학사, pp.15-40.

小林芳規・西村浩子(2001), 「韓國遺存の 角筆文獻 調査報告」, 『訓點語と訓點資料』 107, 東京: 訓點學會, pp.36-68.

小林芳規(2002), 「韓國의 角筆點과 日本의 古訓点의 關係」, 『口訣硏究』 8, 口訣學會, pp.21-76.

_____(2003), 「新羅經典에 기입된 角筆文字와 符號-京都·大谷大學藏 『判比量論』에서의 發見-」, 『口訣硏究』 10, 口訣學會, pp.5-30.

구결학회(2003), 『각필구결 자료 영인본 이용 안내』, 구결학회 회원 통신문(2003.11.30).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2동 중산마을 대우아파트 809-706〕
E-mail: verdulo@hanafos.com
접수일자: 2004. 06. 30.
게재결정: 2004. 07. 30.

On the Location of Kugyolpoint

-With reference to the *Yuqie shidi lun*(瑜伽師地論) vol.Ⅴ & Ⅷ-

Chang, Kyong-jun

This paper introduces the subdivision of the location of kugyolpoint and the locational variation of kugyolpoint which observed in the *Yuqie shidi lun*(瑜伽師地論) vol.Ⅴ & vol.Ⅷ's point-attached kugyol(點吐口訣) in advance, and then argues that the two phenomena mentioned above are closely related.

In the *Yuqie shidi lun*'s point-attached kugyol, it is most probable that about 30 locations of kugyolpoint are distinguished from one another and the distance between neighbering locations is very short.

In this materials also exist so-called 'the locational variation of kugyolpoint'(口訣點の位置変異) phenomenon which makes the final location of kugyolpoint varies with the shape of the Chinese character. And this phenomenon is originated because the to-attacher(懸吐者) made the strokes of the Chinese character into important criterion of decision of final concrete location of kugyolpoint.

The reason why the to-attacher of this materials took the various shape of the Chinese character into consideration in the process of to-attaching is presumed that it is very necessary for

him to secure a specific criterion of dividing locations because the subdivision of distinguishing locations of kugyolpoint is very elaborate.

*Key words: kugyol(口訣), point-attached kugyol(點吐口訣), kugyolpoint(口訣點), the matrix of singlepoint(單點の點圖), the locational variation of kugyolpoint(口訣點の位置変異), standard location(基準位置), variational location(変異位置)